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價 壹部(朝夕刊)金五錢 朝刊貳錢 夕刊參錢 壹個月先金壹圓拾錢 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壹行壹圓廿錢 同報欄內貳圓 四號九字壹行 八拾錢 貳號七字壹行貳圓 揭載指定料 五號每壹行參拾錢

發行所 京城水標町四三 朝鮮日報社 電話(光化門)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illegible]進

社說 新春經濟界의 考察 好況보다도 整理에

一

오래동안 經濟界에는 不景氣가 繼續되야 斯界各方面은 沈滯狀態를 呈하얏섯스며 이것을 挽回키爲하야 各種으로 努力한바도 잇섯고 或은 所謂中間景氣의 出現을 보지도 안은것이 아니나 不況은 依然繼續되엿다 더욱 朝鮮의 經濟界는 甚히 劫弱한데다가 日本과 同一한 經濟範圍에 잇슴을 因하야 또 아니한 打擊을 바든바도 만엇섯다 그런데 今番新春年頭에 際하야 財界方面의 觀測에 依하면 大多數가 樂觀을 說하야 年末年始株式界의 大爆騰을 伴하야 자못注目되는배 不少하다 勿論財界의 前途에 對하야는 누구나 斷定的判斷을 할問題는 못되나 果然그前途에 얼만한 期待를 할수잇는가를 考察하라 한다

二

昨年中朝鮮經濟界를 回顧하면 貿易上으로는 對日及其他를 合한 十一月까지의 累計가 輸出二億九千七百七十六萬圓、輸移入三億○六百三十一萬圓을 示하야 貿易의 均衡上으로는 八百餘萬圓의 入超이나 十二月末까지에는 出超로 轉하엿슬것을 豫想할수잇는바오 全朝鮮手形交換高는 一月以降逐月增加하야 十一月末에는 九千五十餘萬圓을 示하얏스며 京城의 物價指數는 一月中二六五、四三으로부터 十一月中에 二四五、六七인 低落趨勢를 보힌것은 現下財界에 就하야 歡迎할만한 材料가 되는바이오 또 朝鮮經濟界에 至大한 努力을 가젓다고 할 農村에 就하야 보면 第二回稻作豫想이 千四百八十六萬三千三百七十七石을 示하야 前年實收高보다 百六十餘萬石의 增收豫想임과 또 繭實收高가 二十八萬四千百四十一石으로 前年보다 增加되기 七萬六千餘石에 達한것等은 모다 景氣材料 或은 財界好轉에 素因을 줄수잇는줄로 밋는것이다

三

또다시 朝鮮經濟界와 直接影響이 잇는 日本의 現狀乃至歐米의 狀態를 보면 米國에서는 過發하는 景氣를 抑壓코자 反히 金利를 引上하얏고 倫敦가튼데는 昨年의 手形交換總計 四百四億三千七百萬磅으로 過去의 最高記錄보다도 九億四百萬磅을 增加하는 空前의 盛況을 呈하얏다하며 日本에서는 昨年十一月末까지의 手形交換高는 七百四十三億六千八百九十萬圓인 從來의 最高記錄인 大正九年同期보다도 六十五億八千百萬圓의 增加를 示하얏고 對外貿易의 入超激減과 對外爲替의 昂騰 더욱 今番年末年始에 亘한 株式市勢의 爆發的騰貴는 景氣를 助長한바 不少하엿스며 또 日本內農作物의 增收가 가장 堅實味를 與함이 만헛다고 보겟다

四

이와가티 觀察하면 곳 財界에 好況來를 따 呼할것갓지마는 他方으로는 또 幾多의 難關이 잇는것을 忘却치 못할것이다 日本에 잇서서는 今年上半期의 貿易의 輸入減은 豫想하는배 잇스나 對外爲替는 昨年中에는 海外市場에서 外債의 輸入에 依하야 便益을 준배만헛섯지마는 아직까지 金解禁의 實現을 보지 못한 現狀에 잇서 반드시 關鍵을 保證할수 업고 不充實한 景氣로 因하야 物價의 反騰을 促할 憂慮가 업지못할것이오 朝鮮經濟界에서는 唯一한 期待를 하는 米의 收收도 그 價格의 不意의 騰落과 農村施設의 不備한 배만하서 統計에 表現된것과 가튼 實績을 어들는與否는 아즉도 疑問됨을 免치 못할것이라 하겟다 이와가튼 現狀임으로 方今財界에는 所謂空景氣의 分量이 不少하다 더다서 一時的好況을 보고 곳 好景氣니 하고 妄信함은 不可함과 同時에 一面으로 從來보다 相當한 堅實味를 더할것도 事實이다 그럼으로 財界는 비로소 回復할만한 機會를 어덧다고 보는것이 妥當하겟니 即 이로부터는 不意의 特殊事件이 업는限에는 努力如何로서 回復할 可能이 잇다는것이다 만일 一時的投機에 眩惑하거나 無謀한 積極을 夢想케되면 다시 破滅悲運에 陷할것이 無違할것이오 차라리 從來優柔不進의 感이 잇든 整理事業을 積極的으로 進行하야 同復途程에 對한 準備를 迅速히 할것이라 한다

五

다시 朝鮮經濟界를 顧察컨대 財界가 回復되고 好況을 본다한들 朝鮮人에게 미칠 惠澤이 얼마나 되며 또 그 好況을 利用할만한 어떠한 施設과 準備가 잇는가 하야 이에 이르매 悲哀孤獨의 感이 讀者도 또한 가튼배잇스리라고 생각한다 金融界 商業界 工業其他企業界가 今日과 가티 微弱한바로서 財界의 好轉을 希望하는 意味가 何에 在한가 年四百萬石의 朝鮮米를 輸出하고 區區히 粗惡한 代用食을 求하야 겨우 貿易의 出超를 云謂하는것으로만은 將來가 너무 寒心하다 만일 우리의 努力과 資本을 一層有利한 方面에 쓰라면 今日과 가튼 微弱한 바로는 所望을 實現치 못할것이다 그러나 財界의 不況은 各種企業의 勃興을 停滯시키는 害毒이 잇슴으로 만일 財界가 多少라도 回復되면 그만큼 企業上便利를 줄것이오 이를 機會로하야 우리의 產業도 發達을 計劃할수잇다는 爲主히 將來의 希望에 對하야 財界의 回復이 迅速하기를 바라는바이다 더욱 輓近에 이르러 產業振興의 必要가 各方面에서 提唱되는 現狀에 感하야 一層企待가 緊切하다 한다

在米墨國人의 土地所有法制定 然이나 國交에는 無關

(華盛頓十一日發) 亞米利加合衆國은 墨西哥外人土地所有法制定에 對하야 通牒을 發送하리라는데 此에 依하야 米墨이 國交를 斷絶하는것이 아니라 充分한 善意로부터 起草된것으로서 墨西哥大統領『칸스』氏가 大統領令으로서 反動的行爲가 顯著한 立法을 無效케할 事를 希望하는것이라더라

境界爭議에 對한 ◇……亞國外相의 聲明

(紐育十日發) 『베노스아이레스』 來電에 依하면 『알젠친』共和國外務長官『카란드』氏는 亞米利加政府로서 『알젠친』이 『칠니』와 『아리카』의 境界爭議에 干涉하기를 希望하면 『알젠친』은 仲裁者인 亞米利加政府의 位地를 支持할 意이라하며 大概는 右調停이 失敗되면 米大陸의 國民生活에 關한 가장 神聖한 精神을 破壞할것을 意味하는 外닭이라더라

中國司法權會議는 政局紛糾로 前途可慮

(東京電) 中國의 司法權會議는 十二日午前十時부터 居仁堂에서 開幕式을 擧行키로 되엿는바 本會議는 繼續해서 開會될 豫定이나 中國의 政局은 依然히 紛糾狀態임으로 果然同會議의 目的을 達할는지는 疑問이라더라

段、許의 關係不美 日政府는 調停에 努力

(東京電) 許世英內閣은 段執政과 有耶無耶의 關係中에 出現되엿스나 許와 段과의 關係도 不遠間分離될 模樣이며 日本政府는 段執政이 下野하면 同時에 關稅會議司法會議도 中斷되겟슴으로 中國의 將來에 對하야는 遺感千萬이라하야 王正廷氏를 通하야 許氏內閣과 段執政의 間을 圓滿케하야서 段의 下野는 中止하도록 하는 中이라더라

『부』大使에 對한 黑龍會等의 行動

(東京電) 外務省에 申請한 黑龍會大和會等分子十一名은 十一日午前十一時 外務省에 來到하야 外相이 不在하엿슴으로 若杉情報部第二課長을 面會하고 『부라질』大使『심버기』氏를 本國에서 召還하도록 『부라질』政府에 交涉할것을 言及하엿는바 若杉課長은 其意를 大臣에게 傳達하리라고 答하엿슴으로 一同은 零時半에 辭去하엿다더라

比例代表選擧 改正法律案提出

(東京電) 普選法에 伴하야 比例代表選擧制의 採否如何는 前議會에서도 相當論議한바 잇섯스나 今議會도 野黨側으로부터 此에 關한 改正法律案을 提出할 模樣이고 憲政會로서도 贊同할 傾向이 不少함으로서 아마 有志로서 提出할 運에 至하리라고 觀測되더라

解散與否는 豫算稅制가 關鍵

(東京電) 解散인가 아닌가 今議會의 狀勢는 政友本黨分裂後 豫測할수 업게되엿는데 問題는 豫算及稅制案의 形勢如何에 잇다 그러나 此問題에 關하야

一、憲本妥協의 境遇
二、政本協의 境遇
三、三派續行의 境遇

의 三大別할수잇는바 一의 境遇는 勿論議會는 無事하겟고 二의 境遇는 爲先解散을 볼것은 無論이다 그러나 此境遇는 決戰投票로 되야 憲政會는 新正俱樂部와의 聯合에 依하야 比較的多數를 占하야 結局解散을 回避하게 될는지 未知이더라

日、露 通商代表問題 實際의 解決

(東京電) 日露間에 交涉中이든 通商代表問題는 今回露國은 『안손』氏外三名의 商務參事官과 補助官三名을 日本에 派遣하엿는데 此等은 商務官의 資格으로 貿易事務를 掌한 意義가 政府에 通達하야왓슴으로 商務官으로의 待遇를 與하기로 한바 實際取引上의 署名人은 別로 實任者를 要하게 되엿다 此에 依하야 通商代表問題는 實際의 解決을 見하엿스나 露國側에서는 貿易上의 事務取引狀況에 依하야 更히 十二人까지의 商務官을 派遣할 意嚮이고 日本으로 莫斯科에 派遣할 商務記官은 旣히 豫算에도 計上하엿슴으로 民間側으로 露國의 實情에 通曉한 適當한 人材를 採用하나고 目下銓衡中인데 當分田中大使에 一任하야 通商上의 事務를 取扱식히기로 되엿더라

藤子策動 大演劇實現?

(東京電) 政界의 惑星 後藤新平子一派가 近時政界의 分離作用에 乘하야 一旗를 揚하라고 準備中임은 事實인데 後藤子의 幕下에 集合한 後藤子直系의 舊地、內田、永田氏等은 秘密히 床次總裁를 援助하야 政界의 革新을 達成식힘을 表面의 口實로하야 玆에 一種의 同盟을 作하고 近近起할 政局의 變化에 豫히 備하라는 魂膽을 가지고 時局轉換을 試하고자 하는바 境遇에 依하야는 後藤床次兩氏의 會見을 實現식히라고 奔走하는 事實이 잇고 床次總裁의 意嚮은 結拾하고 後藤子로는 內心政界에 對한 野心이 尋常치 아니하야 時機到來하면 依例得意의 大演劇을 演出할것으로 觀測된다더라

都草小作人總會 地主及執達吏對抗方針과 在監同志後援決議

務安郡都草面小作人會에서는 去三日都草青年會館에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李泰奎氏司會下에 趙尙淑氏의 經過報告가 잇슨後 業務進行에 就하야 百方討議한 結果 左記各項을 決議하얏다더라

◇決議

一、文在喆 中島 尹永炫 金俊基 今井豊馬等의 乙丑年度小作料는 拘禁幹部二十人事件이 解決될때까지 支拂치 아니할것
一、執達吏對抗方針에 關한件
一、在監幹部私食差入에 關한件 解決될때까지 一日一時差入할것
一、反動分子에 關한件
一、在監幹部後援에 關한件 (木浦)

警告文發送

義州푸로同志會에서는 去十日附로 元山靴工主에게 警告文을 發送하얏다는데 十五日內로 靴工主側으로부터 要求에 不應할時는 積極的行動을 取하기로 決議하얏다더라(義州)

統營에 女性問題講演

統營에서는 統營女子青年同盟의 主催로 去八日大和町青年會館에서 女性問題大講演會를 開催하얏다는바 四百餘名의 男女聽衆에 多大한 覺醒을 주엇다하며 演題와 演士는 如左하다더라

現代와 女性觀 陳平軒君
朝鮮婦人도 사람이냐? 金其英君 (統營)

푸로同志會 新組織

義州職業會臨時總會는 豫定대로 九日同會事務所에 開催되여 會錄朗讀 會員點名이 잇슨後 會體變更의 件과 任員制度變更의 件을 理事會決議대로 通過한後 宋正奎의 發議로 元山元昌洋靴店主人이 職工을 無理解雇하고 毆打까지한 事件에 對하야 그 責任者에게 此를 警告하는 同時 此를 積極的으로 聲援키로 決議하고 푸로同志會萬歲三唱으로 閉會하엿다는데 被選된 委員은 如左하다더라

◇委員 執行委員 宋正奎 朴允泰 金承寬 金時賢 洪鍾祥 全國煥 朴成贊

執行委員會 繼續하야 執行委員會를 宋正奎君司會로 開하고 左와 如히 各部責任委員과 委員長을 選擧하고 新年懇親會까지 잇섯다더라

◇委員 庶務 洪鍾祥 金時賢 文藝 宋正奎 全國煥 經理 朴允泰 金承寬 委員長 朴成贊 (義州)

新聞雜誌 配達夫組合 開城에 創立

開城市內에서 朝鮮文新聞雜誌의 配達業에 從事하는 同志들의 親睦機關으로 開城新聞雜誌配達夫組合을 十日東亞日報社開城支局에서 發起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全鮮配達夫總同盟에 加入할件을 決議한後 委員을 選擧하얏다는바 組合의 宣言과 當日當選된 委員은 左와 如하다더라

◇宣言 잇는놈과 업는놈의 利害는 갓지안타 우리들은 업는놈들이다 굿게뭉치이자 그리하야 힘잇게 싸우자

◇委員 金啓煥 馬千孫 [illegible]寅基 (開城)

會名을 北進青年會로 野幕青年 革新總會

京畿道振威郡北面野幕里 野幕青年會는 組織以來 青年의 文盲을 退治하엿고 外라 無產青年運動에 努力코자 夜學會를 열고 그들의 教養에 盡力하야오던中 去四日에 會務를 一層刷新코자 革新總會를 開催하고 會名을 北進青年會로 改稱하야 綱領改正及執行委員改選外 諸般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綱領 新社會建設의 役軍訓鍊과 修養을 期함 無產青年의 團結과 親睦을 圖함
▲機關 庶務部 敎養部 調查部
▲執行委員 朴乃一、朴蓮壽、朴文喜 (烏山)

光州勞働懇親會

光州勞働共濟會에서는 今年運動에 對한 懇親을 하기爲하야 去三日 同會館內에서 各職業別代表를 招待하고 新年懇親會를 開催하야 長時間意味深長한 討議가 잇슨後 晩餐을 마치고 同夜散會하얏다는데 出席代表는 印刷職工 洋靴職工 土木工 理髮職工 電氣職工 三十餘名이라더라(光州)

自由와 道德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사람이 自由가 無하면 살어도 산것이라고 할수업다 곳 自由가 無한 者는 마치 手와 足을 結縛하야 둔것과 가티 목말으되 물을 먹지못하며 배가 곱흐되 밥을 차저먹지 못하는것과 다름이 업다

◇自由는 歡樂을 爲主함보다 權威를 爲主함보다 살기 爲하야 必要하나니 곳 살기 爲하야 自由로 活動하야 食物을 取하며 居所를 備하며 모든일을 하여야 할것이다

◇世上에 奴隸로서 榮達한 사람이 잇다 하면 그는 곳 衰滅치 아니한 者 別로히 업스며 그는 곳 自由로 修業하지 못하며 自由로 活動하지 못한 外닭이다

◇萬若 奴隸로서 그러케 안한 사람이 잇다 하면 그는 오직 그 束縛이 풀리고 自由를 어든 뒤의 일이다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動物에 잇서서도 그러하다 할수잇스니 저 蒼空中에 나는 새도 自己의 生을 爲하야 水를 飮하고 食物을 取하는 天賦의 自由가 잇다

◇그럼으로 모든 動物도 이러한 原則을 떠나서는 瞬間도 生의 意義가 업다 할것이다

◇그러나 自由는 道德잇는 사람이 비로소 가지나니 道德이 업는 사람은 곳 道德이 잇서야 能히 自己의 自由를 完全히 享有하고 또는 남의 自由는 侵犯치 안음으로 自己와 他人이 同一히 自由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換言하면 不道德한 者는 自己의 當然한 自由는 拋棄하고 不當히 放縱에 기우러지며 他人의 神聖한 自由를 侵犯하나니 따러서 社會는 不純하여진다

◇예컨대 露西亞의 貴族이 不合理한 專制主義로 弱者의 自由를 侵犯한 結果 畢竟은 露西亞帝國의 覆滅을 誘致하엿나니 이것이 어지 偶然한 事이라 그럼으로 果然 道德이 잇는 者가 비로소 自由를 享有할수잇다 함이다 (三浪津 老총각)

晉州體育會 創立總會

昨年十二月三日에 多大한 意義를 가지고 發起總會를 한 晉州體育會에서는 以來多數會員을 募集하는 同時 諸般準備를 마치고 去九日 市內一新女高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金贊成君의 經過報告가 잇슨후 臨時議長白南奎氏의 司會로 議事進行에 들러가 規約通過를 마치고 委員을 選擧하고 事業及其他事項은 委員會에 一任하고 同五時에 閉會하엿다는데 同會의 會員은 各學校敎員및 各團體幹部로만 組織되야 運動界의 指導階級의 人物들인바 同會의 發展을 따라 晉州運動界의 一大曙光이 빗치리라고 一般은 觀測한다더라(晉州)

◇委員 金贊成 金長煥 金秉宙 吳景杓 朴彰烈 金仁淑 玉德照 白南奎

開城天道少年 松都少年會로 變更

開城天道敎少年會에서는 去十二月三十一日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會名을 松都少年會라 變更하는 同時 左記各部에 對한 補選委員을 選擧하고 新年부터는 一層少年運動에 盡力을 더하리라더라(開城)

◇任員 庶務部 朴麗鏞 金溶基 學習部 金天與 遊樂部 李己得 談論部 尹昌順

小作會長反旗로 黃田小作界에 一波瀾

全南順天郡黃田面小作會長朴重臨은 從來의 爭議가 自己私慾職位이던지 爭議도 매우 猛烈하엿고 會員도 多數되고 黃田小作爭議事件이라하면 世上이 다 알만큼 되엿고 順天警察署에서도 黃田事件이라하면 매우 머리를 알던니 會長朴重臨은 共同裁作鳴鼓事件等 各種關係로 鐵窓生活 一年餘에 歸家後 今年부터서는 會長을 辭免하고 近郡各地主를 訪問하고 自己가 反旗를 들면 黃田小作會를 滅絶하겟다는 口實下에 會員들과 떠서 舍音사기로 盡力한 結果 朴勝稷의 郡舍音과 金澤均의 副舍音을 乘하하야 非但黃田이라 光陽各面外지 다니면서 비록 大悲은 업다하나 舍音行世를 快히하엿스며 黃田에 잇서서는 金澤均의 地稅를 바더주기로 自擔하고 나서서 발서 地稅金아니 번 小作人 麥坪里崔啓文 黃鶴里趙鳳基 大時里李卜男 其他各人의 小作畓을 地稅만 아니낸 者면 一切搖動한다하매 元來黃田面은 朴會長의 動機로 小作運動이 猛烈하엿슴으로 地主와 積怨이 만흔터임으로 此際에 小作人側人心은 極度로 洶洶하다더라(順天)

金陵俱樂部 發會式과 示威

慶北金泉 金陵俱樂部에서는 去十日 金陵青年會館樓上에서 發會式을 擧行하엿는데 周南泰氏의 沿革報告와 來賓의 祝辭도 만엇스

農勞大會懇親會

平壤勞農大會에서 오는十七日(日曜日)午前十二時 當地大同門內門里同會館內에서 新年勞農懇親會를 開催한다는데 一般農勞의 關係者는 多數參席하기를 바란다고 한다(平壤)

金堤青聯 創立禁止 形式을 變하야 懇談會로 終會

旣報 金堤青年聯盟發起會에서는 金堤中學期成會臨時事務所內에서 金堤青年會、孔德青年會、芙蓉青年會、月桂青年會、下離無產青年會、金堤平青年會、金堤女友會、萬頃青年會、白山正로青年會末參의 代議員三十餘人이 會合하야 金堤青年聯盟創立大會를 金炳一君의 司會下에 開會하자 金堤警察署臨場警官으로부터 金堤青年聯盟創立大會는 治安에 妨害될 念慮가 잇다하야 禁止함으로 即席에서 準備委員會를 열고 交涉委員張潤錫、趙在述兩氏가 警察署에 가서 質問하얏스나 이 青年

事項을 決議하고 이어서 各青年會代表者 金喆君과 益山青年會 의 感想談이 잇슨後 同五時에 閉會하엿다더라(金堤)

◇決議
一、青年運動에 關한件
一、勞働運動에 關한件
一、女性運動에 關한件
一、衡平運動에 關한件
一、少年運動에 關한件
一、中學期成運動에 關한件

賃銀引上問題로 警官出動과 大騷動 結局穀商側讓步로解決

去七八兩日間 全南潭陽郡邑內米穀商三益社(現丙谷支店)前에서 八十餘名의 勞働組合員들과 米穀商李福宰氏와 사이에 賃金引上關係로 是非가 이러낫자 同八日午前十一時에는 一大騷動이 起하야 畢竟 正私服警官까지 二十餘名이 現場에 臨하야 勞組員이 幹部를 當地警察署로 召喚하엿다는바 이제 其內容을 探聞한즉 所報 潭陽勞働組合에서는 去一日로써 『賃金引上』의 大示威行列을 終了하는 同時 幹部一同은 各商業家諸氏를 訪問하고 附付한 賃金表와 如히 賃金引上의 實行할 旨를 써 懇請하는 同時에 『우리』는 去年十一月十六日 米穀商組合總會當時에 勞組代表者 奇老春 鄭環仁 鄭埰煥 三氏가 出席하야 互相協議로 賃金引上案을 提議하엿슴에도 不拘하고 拒絶을 하엿슴으로 不得已 示威行列을 實現하엿슨즉 萬一此에 不應할 時는 어데까지든지 싸우겟다』는 最後의 決心을 示함에도 不拘하고 米穀商組合에서는 去五日 日人長谷川家에 召集하야 緊急會議를 하고 諸般事項을 決議하는中 特히

絶對로 勞働組合의 決定

한 表準賃金은 引上할수 업다는 盟約을 決議하고 勞働組合員들을 使用치 아니하기로 米穀商은 現金六十圓式 運送店등은 三十圓金을 支出하야 『구루마』牛車二十臺를 買入하야 無料로 外村人夫三十二名을 밤새로 募集하야 即 米穀商組合의 勞働者로 使用할것을 決議하자 翌日부터 此의 實行함을 본 勞働組合員들은 다시 決心하고 一處에 會合한後 前記米穀商 李福宰氏를 八十餘名이 包圍하고 우리 生命을 빼아슨 者는 오즉 日人보다도 鞠昌烈 李福宰다고 부르지즈며 그와가치 騷動을 한것이라는데 現場에는 當地警察署長外지 出動하야 勞働組合幹部들과 여러가지 方面으로 鎭定케한後 同下午一時부터 六時頃까지 警察署內會議室에 米穀商組合員及勞働者幹部를 召集하고 雙方이 協議한 結果 商業家側의 李道承氏와 松井署長의 努力으로 도되여 雙方이 諒解하고 賃金은 引上키로 하엿다고(潭陽)

新義州 織造組合始業

中國人勞働者의 侵入으로 生活程度가 다른 朝鮮人勞働者의 打擊이 甚함을 遺憾하야 그 對策을 講究中이든 李熙迪氏外有志가 織造組合을 設立하고 第一次로 洋襪織造에 着手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그後 諸般이 準備되야 再昨八日부터 繰業을 始作하엿는바 事業을 擔當한 組合員이 一流實業家임으로 一般社會의 囑望이 多大하다는데 當業者는 말하기를 每年約百名의 技術者를 養成할 計劃이며 또 第二期로는 『메리야스』『粗布』等도 製造하야 漸次事業을 擴張하리라 한다더라(新義州)

爭議中 爭議에 同情 慈恩作人의 熱血

務安郡慈恩面小作人會에서는 今番小作爭議로 因하야 警察의 包圍中에 잇서서도 姉妹團體에 對한 同情心이 勃勃하야 去四日 都草小作爭議에 現金二十圓을 보내는 同時 慰勞文까지 보내엿다더라(木浦)

鐵湖懸賞歌鬪 水原青年會主催 三社支局의後援

水原青年會에서는 時代東亞本報 三支局後援으로 鐵湖歌鬪大會를 來二月二十日上午十時부터 水原公會堂에서 開催한다는데 大會規則은 如左하다더라(水原)

◇規則 一、準備에 關한件 二、排列에 關한件 三、朗讀에 關한件 四、姿勢에 關한件 五、勝負에 關한件 六、審判에 關한件

◇寸鐵◇

【晉州】 엇던 煙草專賣局員은 小賣商하는 女子에게 深夜에는 외 당배아파느냐고 詰難하다가 結局 그 男便을 毆打하엿다고 그 毆打야말로 意味深長이로군 ◇

【蔚山】 畜產組合牛市場에 黑幕이 伏在하다는 風說이 도다니는데 當局이 知而故放하는지 ◇

【靈武】 洪原엇던 普通學校長은 放學中 高利貸金業에 紛忙하다고 放學을 하엿구로군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Jan. 12th, 1926.

THE IMMORTAL HOPE

Among the hopes of men there is one that is everlasting for each individual, and what they really live for. Life itself is shallow and vain but hope is so sacred, and significant that it renders the former worth while.

Christianity, Buddhism, and Mohammedanism all have their particular hopes for the next world, and these are eternal for they believe that they will surely be realized. But this is not hope which I wish to explain.

All things that are immortal are so, not because they keep their shape or name for a long time, but because they are so firm and noble that they are seen and heard for ever. Such is the case with hope also.

An immortal hope means complete success. If one has an immortal hope for bliss in the next world he must strive hard to earn it in his present world, or he is but a fool. Those things we think most of are seen in our dreams, and the present world is like our day, and the next world, our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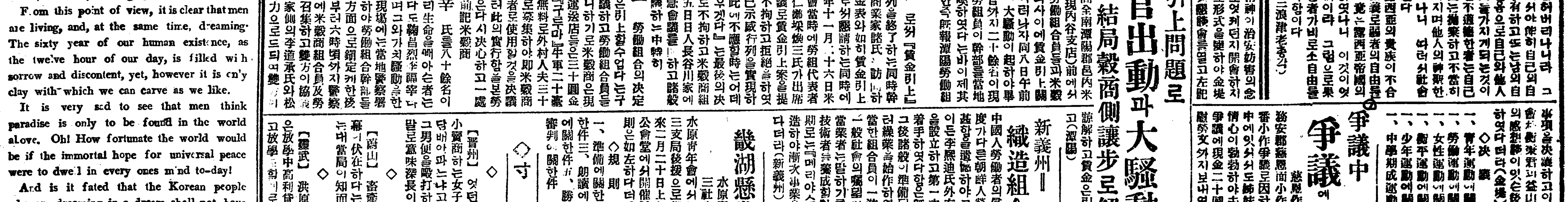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lear that men are living, and, at the same time, dreaming. The sixty year of our human existence, as the twelve hour of our day, is filled with sorrow and discontent, yet, however it is only clay with which we can carve as we like.

It is very sad to see that men think paradise is only to be found in the world above. Oh! How fortunate the world would be if the immortal hope for universal peace were to dwell in every ones mind to-day!

And is it fated that the Korean people who are dreaming in a dream shall not have an immortal hope for the special right that others enjoy?

英文欄

遠大한希望 심재홍



朝鮮鎭南浦龍井里 誂靴專門 洋靴貨卸小賣 高添和商店 電話三一四番

鎭南浦府碑石里 製材原木 製函丸太 木材委託 渭雲材木商會 電話一大六番 主任 姜俊 張淳 趙信 金東 金斗

鎭南浦府碑石里 聖書 各種書籍 學生用品 及敎科書販賣 大成書館 金就礪

鎭南浦府 各國自轉車直輸入 都散賣 呂謙禹自轉車店

鎭南浦府三和町 洋服調進 附屬品一式 白雲洋服店 白亨濟

鎭南浦府億兩機里 全錫濟 全錫淳

001583

鎭南浦府龍井里十九番地 司法代書人 楊致中

鎭南浦後浦里 布木商 韓東涉

鎭南浦府 各病診療 入院隨意 大同醫院 電話四五四番

六十餘種 賣藥本舖 大同藥會本舖 振替京城三○八四番

鎭南浦府碑石里 司法代書人 吳中洛 電話一二三番

鎭南浦新興里七六番地 司法代書人 李謙魯

鎭南浦府後浦里 綿絲布商 白南薰商店 電話六四六番

鎭南浦府龍井里 衣籠家具製作部 殖林材木商會 韓明倫

鎭南浦府碑石里二○八番地 司法代書人 金泰憲

鎭南浦府碑石里一六五 司法代書人 韓昌爀

鎭南浦府 洋靴 各種便利靴 經濟靴 金成洋靴店 金成觀

鎭南浦府龍井里 桂麟國

鎭南浦府龍井里 協成印刷所 韓明鉉 李鼎鎬 電話一三三番

鎭南府碑石里 南浦寫眞館 金根永

三和金融組合 理事 瀨ケ沼百富

鎭南浦府碑石里 西鮮家具工場 金元澤

鎭南浦公立商工學校 同第一公立普通學校 同第二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鎭南浦府旭町 廣一時計店 黃世俊

鎭南浦龍井里 朴寬植

鎭南浦龍井里 吳承昌

鎭南浦府龍井里 朴昌周

鎭南浦藥洞 諸雜貨商 金松國商店

鎭南浦藥洞 布木穀物 玄信鎬商店

鎭南浦龍井里一七 이서리아寫眞館 電話四四五番

鎭南浦府龍井里一九 司法代書人 金兢業

鎭南浦府旭町二十二番地 棉花 大豆直輸出商 金海商店本店 棉花係 穀物係 私書函鎭南浦局第十六號 電話長四○五番

鎭南浦府龍井里十九番地 司法代書人李基周事務所 金振兌 鄭世鏞

鎭南浦龍井里四五 龍井醫院 藥師 李顯柱 電話五四四番

鎭南浦府後浦里 西 運送店 張麗璧 電話三五三番

鎭南浦倉庫會社

鎭南浦府碑石里一二三 三和釀酒商會 尹基元 電話一四九番

鎭南浦府藥洞 麻類 絲緞布 木紙類 金炳俊商店

鎭南浦龍井里一三○番地 各丸太 薪炭 石炭 委託販賣 金思永商店 港町出張所員一同

鎭南浦藥洞 海陸物產 委託販賣 絲緞布 紙物各種 承昌信商店

學校費諮問案은 原案대로全部可決

닷새동안을분운중에잇던 학교비평의회는무사종료

京城府學校費評議會第五日

경성부학교 비평의회 데오일은 십일일(월요)에 계속개회되엿는데출석의원은불과열명이엇다 명각오후세시에마야(馬野)의장이 개회를선언하고 즉시자문안(諮問案)데일, 이량호의 이독회(二讀會)에 드러가 원안(原案)에대한일반의원의 의견을뭇게되자 김창두(金昌斗) 리범승(李範昇) 송달섭(宋達燮) 김사연(金思演) 박준호(朴準鎬)씨등제의원이번가려가려서룡산(龍山) 보통학교의 교사(校舍)가위험하다는것을 경성부당국은알면서도 도라보지아니 한다하야 상당히격렬한공격한바 잇섯스며 가라무산아동(無産兒童) 입학난에대한 질문도잇섯스나 결국은 이독회역시 원안대로가결을보기에 이르럿섯스며 자문안데삼호의 일독회도 역시무사가결되고 다음에는 금년도학교비부담자의 부담액 감면(減免)에대한의론을 하게되엿는데 그내용은 공연한것이 아니라하야마야의장으로부터 비밀회(秘密會)를선언하고 즉시그회의에드러가게 되엿는데 예는네사정이 엇더라

李範昇氏가 附帶條件提出 만장일치로 그조건을가결

경성부평의원회데오일은 별항보도와갓거니와 당회의중에의원중으로부터 룡산보통학교수선에대하야것과 무산아동(無産兒童)의 입학난기타 입학아동의격증하는때에 그대책이 엇더냐는 질문을하엿슴에대하야 부당국자는 룡산보통학교 수선에대하야는 금년안에 해결하겟스며무산아동과 입학난에대하여서도 최선의 노력을하겟다고언명하엿는데최후로리범승(李範昇)씨가 리러나서희망조건으로룡산보통학교의 설비에취하야는 근본뎍시설을 하여야될줄로인뎡하는바이니 이에대하야 당국에서는될수잇는대로 금년도안에 상당한긔관을 설치하고 근본뎍도사에속히 착수하기를바란다는조건을 데출하야만장일치로가결하엿더라

武裝團逮捕로 自働車隊出動

사건은점점커가는모양이며 무장단은의렬단원임이사실

석간긔보ー데동군부근에출현한무장단을 데포할목뎍으로 평원서(平原署)에서는십일일밤오전에 경관대를 한천(漢川)방면으로 파송하엿섯는데 동일오후에는다시경비자동차두대에 이십여명의 경관을태워가지고 룡강면(龍岡面)방면으로출동하엿다는바 사건은점점커지는 모양이며 그무장단은 의렬단(義烈團)에속한사람들이라더라 (평원지국뎐보)

日人理事의 公金橫領

방금경찰서의 취됴를밧는중

포천군영중면영평리 (抱川郡永中面永平里) 영평금융조합(永平金融組合)리사(理事) 뇌호환바길(瀨戶丸男吉)은지난대정십삼년십월이래로 동십사년사월까지 칠개월동안에 자긔가리사인것을 긔화로역이여 저축예금(貯蓄預金)과 정긔예금(定期預金)에대하야예금증서를위조교부하야 현금을횡령(橫領)한 외에 조선생명보험회사(朝鮮生命保險會社)보험금모집의 의촉(依囑)을 바다가지고 이것을 횡령한후 권긔 금융조합원의차용증서(借用證書)를 위조하야 조합의노부터 현금을편취하여 모다유흥에 소비한사실이 발각되엇다는데 조합의 피해액은삼천일백삼십삼원륙십삼전 이라하며 방금경찰당국의 취됴를밧고 잇는중으로피해총액에 대하야는 권긔뇌호의친형이 이천원을 판상(辨償)하고 잔액은본인의 신원보증금(身元保證金)과기타로보충코저목하교섭중 이라더라

成川監理敎會에 傳道師排斥運動

뎐도사가사리를도모하며 단톄의공금을허되이업새

평남성천군(成川郡)에잇는감리파야소교회(監理派耶蘇敎會)에서는 뎐도사(傳道師)박창빈(朴昌斌)의부정사건이잇다하야배척운동이 이러낫는데 이케그내용을 듯건대 권긔박뎐도사는부임(赴任)이래로 사회 사업에종사한다하고 사리를 도모하여로동조합(勞働組合)을조직하고회원을 일천여명이나 모집한후그긔본금(基本金)으로 농촌운동(農村運動)을 시작하엿는데 수완(手腕)이 민활치못하야 조합원의호감을사지못하엿슴으로필경은 조합원이 모다탈퇴하엿는바 수천원이나되는 긔본금은전부 업서젓슴으로 더욱일반의반감(反感)을 사게되며 그것이야소교뎐도상에도영향(影響)을밧게됨으로 야소교측의최창준(崔昌俊)、리면현(李勉賢)、박창현(朴昌鉉)등케씨는이에대하야 대책(對策)을 강구한결과권긔박뎐도사배척안을 결의하고 일방으로감독선교사이녕면(李寧勉)문(文)갑독에게 결의문을 송치하야박뎐도사를 면직식이지 안흐면필경대로 교회에가지안켓다고 하엿다더라(성천뎐보)

流行되는離婚

남편의멱을쏠고 면장에게애원해

지나간구일오후네시경북청도군화양면사무소(慶北淸道郡華陽面事務所)압헤서 이십세쯤되여보이는녀자가 엇던청년의 멱을쏠고 면장에게가자마자하야 일시대활극이 이러낫다는데 이에그내용을듯건대 그녀자는화양면서상동(華陽面西上洞)곽구근의장녀갑천(郭川根長女甲童)이라는 당년이십일세되는 녀자로십칠세에 동면룡산동(龍山洞) 리정업차자소길(李正業次子小吉)(二一)에게 출가하야 일년간살기실흔 시집을 사다가 마참내 자긔집으로 도라갓는데 소길은 여러번만단으로 위안을 하엿스나 종시듯지안코 리혼을하야달라함으로 리소길은 거절하며 면장에게애원한것이라더라

開城의放火狂

경찰서에잡혀

지난십이월 이십삼일 오후한시경에 개성본뎡(開城本町)이백오십일번디 압헤사는 나무가리에불을노흔것을위시하야이십

巡査가不正利得

여러달동안을계속하야 못된짓을행하다가면직

전라남도 제주도제주면 봉개리(濟州島濟州面奉蓋里) 김무송(金戊松)(二六)과동면화북리(禾北里) 일천륙백륙십삼번디강태현(康太鉉)(三二)과 동면 일도리(一徒里)일천이백십삼번디순사홍구표(洪荷杓)(二一)와순사부장량권주、高鳳柱(二五)와순사고봉일(梁權一)(二三)등의다섯명은공모하고작년륙월경부터수삼차이나동면고찬희(高燦熙)외수명으로부터 우적(牛籍)업는 소(牛)를만히사서 부정리득 (不正利得)을도모하고 다시그와가튼수단으로 생우(生牛)삼십오두를반출(搬出)코저 하엿든바 그중에는 절취우(竊取牛)가 석긴혐의가잇슴으로제주경찰서에서는이에수사(搜査)할것을긴급피의자(被疑者)인형사순사고봉주와순사부장사법계 근무인량권일에게당입케한후다시관구(緘口)과칠십원을수뢰(收賄)하고 그외동시경부보가주임되여관계자를취됴하든중권긔순사들은모다이백원발각되엿는데 모다작년말 경에체포되여 독직횡령죄(瀆職橫領罪)로긔소되엿는바 그와동시에고봉주、량권일、홍구표등의세순사는징계면관(懲戒免官)이되엿다더라

天罰바든 모히中毒者運命

금의옥식에싸엿든몸이 일장추몽이되고마럿다

사람이 세상에나매 누구나불론하고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안락한생활을 요구하는것은 정한리치이다 그러나고해가튼 세상을살어갈제 엇지고장이 업슬것이냐? 자긔의정신 노력을다하야 일생을지내가다가도 임으로헤일수업는 고난을 밧는자가잇거든 하물며화를사취하는자가모두하네『주사를 하고야 고난이 업슬것이냐? 아산군둔포면 둔포리(牙山郡屯浦面屯浦里)리○○은 량반의권력으로 토색하여살써에는 자긔의부족함이 업시지내다가정치(政治)가변하고인심이 변함에따라 그의생활도점점 어려워젓나니 그런중에도『모히』주사를하여오던것이아조중독자가되야 실품을팔어 그날그날을 살아가면서 남편되는이의병을 고치라고무한히애를써왓섯다 그러나송시돈쳐못되엿안아니다 집안에잇는것이라고는 잇는대로 잡혀먹기 시작하매 그의부인은장래의자긔몸에도엇더한환난이 미칠가념려하야 자긔친가로 영영가버리고말엇다 아ー리씨는 엇더케되엿는가? 먹으라면을것업고주사를하려야 돈이업다 하는수업시 자긔형되는이에게가서 잇스나 안저서똥이나싸고 먹을것만찻는자를 누가 조하할것이냐 하는수업시 형의집에서 배척을당한리씨는 불구자의몸으로걸식을하게되엿다 아! 모히중독자의말로? 과연 쓰리고압흐며무서운자극을주는동시다에시한번놋김의눈물을내게한다(둔포)

갈팡질팡하는 丹北駐在所

경북의성군단북면효제동(慶北義城郡丹北面孝堤洞) 림명언(林明彥)의집에서 지난음(陰)십월십팔일에로、리、손、림등사인이 도박을하다가 동면주재소원에게 발견되야 즉시동주재소로 인치취됴하든중 권긔사명중 한사람이 당일에무사히방송되엿슴으로 일반은 매우의심이업시안터니 이케 그내용을 듯건대 동주재소에 근무하는조선인순사와 권긔 도박범인은평소에사이가극히친밀하엿슴으로일본인순사에게무어라고속살거리엿든지그말을듯고방송하엿다가다시 생각한즉 자긔책임상그려다시 불려다가네 사람을 모다벌금이십원식에 처벌하엿다더라

新石里振興會美擧

례산군오가면신석리 (禮山郡吾可面新石里)박상오(朴相五)는 권긔동리에 와서그의로모김씨(金氏)(六三)를모시고쏠어연명하며오던바 지난십이월이십일경에 그의모친 김씨가병으로 여원히이세상을바리게되바 권긔박상오는 모친의시신을 모시고 손예 묻을 돈이업서 남의 집에서 장례(葬禮)를지낼도리가 망연하야 망지소조하든중 권긔신석리진흥회장의 발긔로 그동리유지에게 긔부를청하고 진흥회금으로 오원을 긔부하야 그시신을 안장하게하엿슴으로 부근 인사들은 신석리진흥회(新石里振興會)의자선사업을 칭송한다더라

도착구분에 김뎨군 김뎨면검산리(金堤郡金堤面劍山里)압헤서 주소씨명이 불명한 오십세가량의 남자가 동사하여 잇는것을 발견하엿다는데 권긔시체에서는 현금사십전과 기타 여러가지를 가지고 잇섯다하며 검시후공동묘디에매장하엿다더라(김뎨)

丙寅年首에 호랑이에게물려

느틔령미데선지피만림리

정선군서면가수리(旌善郡西面加水里、番地未詳)류태춘(劉泰春)(六六)이는 연초수납기가머지아니함으로 자긔가경작한 연초를 수납장소인 정선읍으로미리운반하기위하야 지난이일 느진아츰에 담배두포대를지고 집을떠나 읍에갓다두고 도라오고자 하는것을 이웃에서 동행하야왓든사람이 커물어서못간다고 만류함도불구하고 소관이 급하다고하며 도라선류태춘은 사흘이되어도 오지아니함으로 그가족은읍과 린근동리로 탐문하던바 당일오후 여섯시경에 읍과가수리사이에잇는 준험한 느틔고개미테서 가는것을보왓다는 소식을들은 그가족과 동리사람들은 크게의심하야 그날즉시 가족과동리사람 오십여명이 대를지어 권긔 느틔고개를 중심으로이틀을수색하엿스나 삼일부터 싸인눈으로인하야 하등단서를 엇지못하던차에 마침 지게와발에감엇던 감발을발견하고 근처의눈을파본즉 림리한선지피는 보는사람으로 가슴을 서늘케하얏다는데 이예서확실이 호랑이에게 해를당한줄 알고 계속하야 수색하엿스나 워낙눈이마하야 차질수가업슴으로 눈이 녹기를기다리고 수색에는도라왓는데 그부근사람들은공포중에잇다더라(정선)

蔚山에火災

손해는만치안으나 저옹지내기가곤난

울산군울산면 성남동(蔚山郡蔚山面城南洞) 리룡수 (李龍守)의집에서는 지난구일오후 한시경에 갑작이불이낫는데 이날은읍내시장임으로 리룡수는장(場)에 가고 그처(妻)는 시내포라정미소(布瀨精米所)에서일을하고잇스며 집에는 아무도잇지 안엇는데 불의에그러한 변을당하야 삼간초옥(三間草屋)더구나셋(貰)집을 그가리 소실하엿는데 처자(妻子)를다리고 엄동설한(嚴冬雪寒)에갈바를주저하며 아즉불난원인은미상이라더라(울산)

覆面強盜

김뎨죽산에서

전북김뎨군죽산면대창리(全北金堤郡竹山面大倉里) 이백오십일번디 최래진(崔來鎭)의 집에는 지난십이월십구일 오후십이시에 얼굴을가리인강도가 주인의자는 안방에돌어와 식칼을가지고 위협하야 현금이십원을 강탈하여가지고 도주하야 종적을감추엇다는데 동면주재소에서는 김뎨경찰서사법계의 응원을어더가지고 각방으로 비상선을느리어 범인을 수색중이라는바 아즉도범인의 종적은 오리무중에잇다더라(김뎨)

日本各地에 亂鬪頻頻

대판에서또란투

지난구일 오후열한시경에 일본대판부 중하내군 대향촌자길원(大阪府中河內郡大鄕村字吉原)의일본인마당에서 백여명의 장한(壯漢)들이어우러저서『피스톨』과『비수』(匕首)를 가지고난투 한다는급보를 접한경찰본부와 소할경찰서로부터 경관다수가 급행하야진무에 노력한결과 삼경 (三更)에 이르러겨우진무하고목하검거중이라는데 피해자는 즉사자삼명、중경상자 십여명을내이고 지금도 오히려 북은한긔분이 충만하야 경계중이라는바원인은줄다라기(綱引)를하다가그리된것이라더라(대판뎐보)

可憐한 舊韓國貨幣의末路

시골사람은쓰랴고하고 장사하는이는안밧는다

경북상주등디에는 아즉도 촌가에서 새로난법령은 아지못함으로구한국(舊韓國)돈이만히도라다닌다는바 그것이 각금각상뎜으로 만히퍼지는모양인데 상뎜에서는못쓴다고바다주지아니하야 고촌사람들은 이것을 엇지하겟느냐고큰걱정을하는사람들이만타더라(상주)

醜態가暴露?

端川郡廳內에

남의쌍을국유디로맨든다고 위협하고오백원을바더먹어

함남단천군청(咸南端川郡廳)에 근무하는 관리가 당디광천면운천리김약한 (廣川面雲川里金躍漢)씨를위협하야 작년십월에현금오백원을 사긔하여먹은것이 탄로되야 결국당디경찰서에 검속되야 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엄씨라는이는 음력 지나간십월일일에 권긔 광천면출장을가던길에 당디의부호란 김약한씨를차자보고 월평(越坪)에 개간한토디중에 이큰새로 작구개간하는것은「죽디에긔성이되지안어서실디로됴사하면일만팔백여평이국유디가되는데이제는할수업시국유디로맨다고약을려노코갓다가회환하던길에다시김씨를청하야서오백원이란논을주」씨다 그래서 김씨는 돌을막고강변을 방츅반드노라고 힘드려개간한것이 국유디가된다는 바람에 엇절줄을 모르다가 오백원만내면 소유디를만드러준다는 소리에 귀가뚤여서 쾌히 승낙하엿다 소유디만만드러주면곳오백원을준다고하고 곳주선하야 지난삼일까지 오백원을 다갓다주엇다한다 이소문을들은 사회에서는이런사실이 단천안에 한두곳뿐아니라고 여론이놉하젓다 그래서당디경찰서에서는 다수한데긔고피해자 김약한씨에게가서 됴사를하여보매 사실이 확실함으로지난칠일에 엄씨를 테포하야 신문중 즉 그는사실을 부인한다더라(단천)

汽車에轢死

김뎨역에서

호남선김뎨역(湖南線金堤驛)근처에서는 지난구일 오전열시삼분에사람이 긔차에치어 죽엇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들으면동일오전아홉시오십구분에 부용역(芙蓉驛)을떠나는 목포행(木浦行)삼일일번호의 긔차는김뎨역

龍乙青年會

소년부를조직

시내룡산에잇는 룡을청년회(龍乙靑年會)에서는 그회부속긔관으로룡을소년부(龍乙少年部)를조직하게되여 십일일하오팔시그회관에서 삼십여명의 부원이모히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최명순(崔明順)군의 사회로 규약을통과한후 다음과가티 임원을선뎡하고 무사히 폐회하엿다더라

◇執行委員 崔明順 姜昌福 黃昌俊 徐三得 鄭在鶴 朴南壽 劉富男 金龍孫

鐘路에小火=십일밤오후여섯시이십분경에 종로일뎡목(鐘路一丁目) 구십일번디양복덕하는림성태(林成泰)의집굴뚝에서불이 이러나 집봉세평가량을태운후 여섯시사십분경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 오원가량이라고

洗浦署巡査가 拳銃으로暴行

세포사건긔어이새로운일반 술취한순사의권총에놀랏다

지난삼일 경원선 세포역젼(京元線洗浦)오룡보(吳龍輔)의 집에서는 순사의 폭행으로일대소동이이러낫다는바이제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평강경찰서(平康警察署)에 근무하는 순사박모는 이십삼일오젼 여덟시경에 권긔오룡보의 집에 엇더한 농민한아를 다리고 돌입하야 오룡보의집에 류숙하고 잇는 림상근을보고『너이놈 아편쟁이가 아니냐? 벼정하사를다니지안엇느냐』는등 횡설수설욕설을하다가 무두 허중으로권총(拳銃)을 쓰내여 들고이놈을 쏘와죽이겟다고 협박하는 바람에방안에잇든사람들은 혼비백산하야 도망하랴든차 주인이『누구를쏘다느냐』고 머여들매이놈이다하고림상근을향하야 권총을 휘둘르며 가티왓든 농민과가티 나갓다는바 정복을입은 경관으로이와가티술이 만취하야폭행한바니대하야 세포사건이 아즉머리에새로운 일반은 그순사폭행에대하야 여론이 비등하다더라(세포)

男便의薄情으로 哀怨에싸인女性

사년을두고기다려도 편지한장이아니온다

시베리아로부터 불려오는 맹렬한바람은 몹시도차며 분분한백설은 그칠줄업시 허날리는지난팔일 오후다섯시경에 남루한의복에 발조차벗고 나이삼십여세되여보이는 녀자한사람이 일봉서찰(一封書札)을들고어린아이셋을다리고 당신이 조선일보긔자이요하며 긔한(飢寒)에사모친주린목소리로 겨우말하는모양을보는 긔자는 불상한정경의동정을 금치못하엿다 그는구읍서상동강필수(舊邑西上洞美弼洙)의처 김성녀(金姓女)라는 당년삼십사세된녀자이다나히열여덟에 강씨에게 출가하야녀녁지못한처디나마 다만슬하에 삼남일녀그의 장래를바라고 남부녀대(男負女戴)로 그날그날 십이년동안을 사라오다가 며정십일년이월에마츰내 강필수는 **돈벌기를** 결심하고집을떠나 멀리현해탄(玄海灘) 건너간후 김성녀는여업시 밥과젓을달라는 어린아이들을다리고 주린가삼을 웅켜쥐고 삼복의더운과구진비를 무릅쓰고 엄동설한의치웁을 붙고하며 낫이면노동하고밤이면 바누질을하야 겨우모진목숨을 보존하야가면서 엇지하든지 해외에잇는남편을 바라고잇는 김성녀는 사년이라는 **긴세월을** 하로가티지내왓스나 일권의금권은고사하고한쪽각편지조차망연한금일에이르러할일업시팔세유아(八歲幼兒)에게 밥을빌리고잡집마다 밥을빌러 겨우잔명을 보존하야간다 더구나 사년동안한장의 소식이업는그남편을사모하야수십차의서신을하엿도 회답이업고 간간히부친서신이 도라오를보고 리커로갓는지 혹은황텁에 주림이되여 영원히도라오지 못할커ー **세상으로** 갓는지의심함을마지아니하든차마츰그곳으로부터 고국을차자온 박만이(朴萬伊)라는사람을맛나 자긔남편의소식을물엇더니그사람은길게한숨하며 말하기를 강필수는고국을떠나 일본으로온후 자긔는호의호식으로 자긔세상인줄만알고 주림을 견되지못하는처자는 꿈에도 생각아니한다고하엿다 그말을들은 **김성녀는** 간담이 서늘하야지며 하염업는 눈물을흘리면서 남편을차자가자하니 십리행보를 모르는구습녀자로 풍토가다른나라의 천산만수를 어이가며 차라리잇자하야도 철모르는어린것을 엇지할수업서 다만자긔의 박복한팔자만 한탄하며그래도 행여나자긔남편이 회개할가하야 팔세유아의 어더온한술의 찬밥으로 **주린배를** 채와가며최후결심으로 자긔의 처디를권면이잇고 잇는남편에게 이런줄이나알고잇스라는 편지한장을써서주기를 간청하는 그녀자는그위에 무는사정의말을 힘들듯힘들듯주커하면서 줄기줄기 흐르는구곡에 사모친 스름의눈물을금치못한다 사년간싸인 서름의하소연으로 긔자의간담을 서늘하게하며가티안저잇는 **여러사람** 들도애처로이 녀기고 일반인사는 가련한정곡의동정을금치못하엿다 (청도일긔자)

富豪拉去事件 張基豐放免

무장단과는 아모상관업다고

선천군 산면보암동(宣川郡山面保岩洞)부호 오용권(吳庸權)씨의집에 무장단 세사람이침입하야권긔오용권씨를 잡어 갓든사실은 이미본지에 루차보도한 바어니와 오용권이가 붓잡히여간후에 오씨의 아들되는선천 인제병원(宣川仁濟病院醫師) 오진태(吳震泰)씨 에게돈오천원을 내어주라고 하는 오용권의 편지를가지고 나타낫든선천군 심천면동림동(宣川郡深川面東林洞) 장긔풍(張基豐)은무장단의 위협으로 할수업시심부름을 가게되엿던것이 판명되엿고 무장단과는 아모관계업슴으로 혐의를바더 경관에게테포되엿스나 곳무죄 방면되엿다더라(선천)

휘파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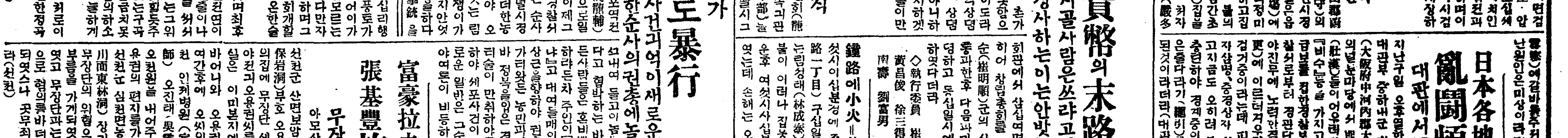
▲경부선왜관에서어엇던신사한분이지난오일신년연회에술이흠벅취하엿다▲자정이지난뒤에발거름니케머로노히지아니하는두다리를비틀거리며▲어엽분 기생집을차저갓다▲그러나 압흘에 정신이마비된신사는 시장(市場)엇던 남의집안방으로돌어가버렷다▲물론그집안방에는 여러사람의부인도 잇섯겟고 그집주인이남편도 잇섯겟이쌔인뒤에 그신사는 귀찬대이가 푸릇푸릇하고 꿩문이벼가열리지근하다고▲이것이신사이냐 도소주를작작먹지

滿洲踏査 (12)

李涵

十月二十九日에도天氣가 따뜻하엿스며 西風이약간부럿다 東滿洲의普崇學校에서떠나서 東편쪽으로 三十五里를 行하야 原家屯 (中國原姓者가開拓하고산다하야命名한것이니中語로원자툰、或칭西區이니同賓縣의第四區警察署가잇다하야四區라하는것) 에到着하엿다이곳에 同胞四戶가살며 水田十三晌을 지엇다하는바 每晌이二千八百八十坪이라한다 그런데此處는 다른데보다 灌作이매우잘되여서水田每晌에稻子三十石 (每石二百五十斤)식 收穫하엿다 稻子一石에白米一百七十斤이난다하니 참으로놀랄만하다 今年에처음으로 水田을開拓하엿는데 開拓者는金老雲이라하니 百折風塵에머리가희엿스며 十載星霜에얼골이주름진 老雲先生의苦心慘澹한經營이 이러한美果를 當年에엇게된것이만흔偉偉이다 이곳에서동우살피어보매 우리의先民들이 滿洲膽原에서 幾千年을 살아가던 남은자취도 밝아회(白日)이여긔거긔 널려잇는것을보고 또다시 벼농사를짓고잇는同胞들을들아볼쌔에 感慨의 눈물이옷깃을 적시면서 一邊으로白衣同胞들을 握手할쌔에그윽히 김봄도난다 전역에老雲先生과 한자리에서자면서過去의風雲談을만히들엇다

十月三十日도天氣가매우따뜻하다 原家屯에서떠나서東으로 二十里를行하야 北村樹 (베쳐수허 一名齊大瓦房『치다와팡』이라함) 에到着한즉同胞十六戶가살고잇는바 開拓은今年부터金老雲 申甫儀 洪禹峰諸氏가 처음하엿다하는데 稻子가괴막히게잘되엿서 아주永久히根據가삽히게되엿다 此處에잇는同胞들은 衣食을하고 남는것은 얼마의金錢이던지不拘하고 조금식이라도 土地를永買할作定을하며 村에서自治的으로規模를嚴定하야 飲酒와賭博을絕禁하고 農役하는쌔일지라도 밤마다 쉬지안코夜學과討論會를하야 可及的知識啓發에努力한다하며 冬期부터『培英學校』라는小學校를 新設할計劃인데校長은 洪禹峰 校監은林宗民學監은梁健錫(兼財務)으로選定하고開天節(陰十月三日)에開學하기로하엿다한다 鄭潤氏가原家屯과北村樹間에사는同胞들을모으게하고『다시살자』라는問題로激切한 講演을하며 우리의다시살길은全혀 根本을다시붓도다가는데에잇다는뜻으로말하야 紀念館에對한 誠捐金四百餘元이當에서募集되엿다 老雲先生은百元을내고 申甫儀은三十元을내엿스며其他는數十元或十餘元을내엿다 우리가推物的으로나아가며 經濟的土臺를집어야生存競爭의渦中에서살아나갈것이事實이지만 先祖의恩德을紀念하며 韓族의精神을固植하여야될것은 叡育할것이아닌바同胞들의 誠心이쏘한이와갓다



鎭南浦 林炳日 電話三〇七

鎭南浦龍井里 三和醫院 醫師 金壽福 電話五〇九

河東郡河東面邑內洞三四〇 晉州支廳執達吏事務取扱 河東出張所 徐相沃

間島局子街 穀物商 山下商店 主 車殷植

間島局子街 藤本自轉車商支店 主 沈浮長

間島局子街 藥種商 森春大藥房 主 林德相

間島局子街 綿布商 元中商店 主 林中鎬

間島局子街 鮮一寫眞館 主 盧 玗 植

間島局子街 朝鮮人民會長 崔允周

間島局子街 布木貿易商 協信昌 主 金昌洙

鎭南浦府龍井里 海陸産物運搬 三和勞働組合 電話一八 同二三五 同四二六 電報略號(サ)

組合長 姜植 副組合長 宋偉情 名譽總務 林俊植 內務部長 李國永 外務部長 邊漢南 財務部長 安奉沅 庶務係長 元華奎 庶務係員 張淳 陸上係長 林瑞春 陸上係員 金東憲 邊用衛 金鉉德 申遇 孫昌 車永 尹信 鄭龍 李弘 海上係長 姜東 海上係員 李升 金重 鄭昌 車明 金景 第二海上係員 朴增 李錫 李成 妻榮 助手 元會 南能 林晃 用 用 宮 東

(※ 위 인명은 세로 3단 배열: 林南元妻李李朴金車鄭金李姜李鄭尹車孫申金邊金林張元安邊李林宋姜 / 東宮用用晃能會榮成錫增景明昌重升東弘龍信永昌遇鉉用東瑞華奉漢偉俊 / 謙槿善周彬煥國洙範周旭淳權燁淑桓根植祚德衛憲春淳奎沅南永國植情植)

鎭南浦府後浦里 海陸貿易 雜貨 委托 朴根植商店 電話 發信略號(コン)又(ㅅ)(ㅂ)

龍岡郡邑內 鮮光堂印刷株式會社

鎭南浦府後浦里 三成精米所 李鐘燮 電話長四三四番